

東醫壽世保元の 文獻的 資料에 근거한 太陰人 病證에 대한 考察

李壽瓊*·高炳熙*·宋一炳*

I. 緒 論

李濟馬가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독창적인 四象醫學의 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四象醫學은 서구의학의 위용과 기존 證治醫學의 틈속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며 서서히 한국 고유의 의학으로 그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四象醫學은 체질에 대한 구분에서 각기 체질에 따른 치료법까지 체계를 갖춘 세계 최고의 체질의학으로 인체의 구조적인 장기와 그에 따른 기능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 그리고 사회의 도덕과 환경 등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반응의 양상, 즉 감정의 발현과 몸의 이상 반응 출현의 경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여 각 체질에 따른 치료법을 달리하였다.

기존의 證治醫學이 黃老之學과 陰陽五行의 사상에 기본을 두고 인간을 자연의 커다란 질서의 체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에 반해 四象醫學은 儒學에 그 근본을 두고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性情의 조절과 知人正氣를 통해 인간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속

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四象醫學의 가치는 四象人 辨證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廣明醫學 家家知醫 人人知病”의 취지이다. 의학을 보다 쉽게 일반인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李濟馬에게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 체계의 독특함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기존의 의학과 다른 철학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오다 보니 그의 독특한 病證체계에 대한 연구는 소원한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일면에서는 당장의 의학적인 운용만을 중시하여 처방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본 철학의 독특함뿐만 아니라 각 체질의 病證의 운용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져 四象醫學이 더욱 대중속의 의학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四象人 각각의 病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욱 나아가 각 四象 病證과 證治醫學의 病證과의 경향성 비교 등 여러가지 연구 방향이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로 東醫壽世保元내에서 문헌적 자료에 근거하여 太陰人 病證을 살펴보고자 한다.

東武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 경희대학교 사상의학과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에서는 이미 이들의 病證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으나 太陰人論과 太陽人論에서는 이들의 病證에 대해 겨우 그 대강만을 밝혔다.”라고 언급하였듯이 四象人 病證論중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은 체계를 갖추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太陰人과 太陽人의 病證에 있어서는 그 완성도가 낮으며 또한 이들의 病證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적어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太陰人의 病證이다. 왜냐하면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辯證論에서 李濟馬가 언급하기를 “太少陰陽人は 현재의 시대에 따라 살펴보면 한 고을에 만명의 인구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太陰人이 5천명이고 少陽人이 3천명이고 少陰人이 2천명이다. 太陽人의 수는 매우 적어 한 고을에 서너명에서 열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²⁾라고 太陰人이 분포가 전 인구의 50%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太陰人 病證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太陰人 病證의 경우 그 대강만이 소개되었으며 또한 太陰人 病證論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東醫壽世保元³⁾에 나타난 문헌적 자료를 중심으로 太陰人 病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李濟馬가 어떠한 생각으로 四象人 病證을 각각 表病과 裏病의 구조 속에서 서술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 보는 것이 사상인의 각 병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四象病證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보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太陰人 病證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太陰人의 胃脘受寒表寒病論과 肝受熱裏熱病論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태음인 표병의 증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肺燥寒證에 대해 살펴 보고 그에 관련되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태음인 표병과 리병의 病理와 病證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本 論

1. 四象病證의 表裏病 구분의 淵源

李濟馬는 四象人의 病證論을 풀어나감에 있어 각기 表病과 裏病으로 病證의 큰 틀을 이루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表病과 裏病의 간결한 구분은 역대 의가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李濟馬의 독특한 사고 체계이며, 그로 인해 四象醫學에서의 表病과 裏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언급들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東醫壽世保元에서의 表病과 裏病을 정의하기 이전에 李濟馬가 어떠한 사고에서 表病과 裏病으로 四象人의 病證을 설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며 이는 表裏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李濟馬는 그의 醫學의인 배경과 四象醫學의 독특함을 醫源論에서 역대 醫家와 醫史學에 대한 견해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편을 근거로 살펴 보면 李濟馬는 張仲景 傷寒論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1. 少陰少陽人論 卽略得詳備, 太陰太陽人論 卽僅成簡約. 『四象人辯證論』
2.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卽 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 數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3. 이 글에서 인용되는 東醫壽世保元의 번역된 글들은 洪淳用 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제2판, 1994년 1월 30일, 서울 행림출판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張仲景이 의술을 갖추어 傷寒論을 저술하여 一家를 이루었으니 의학의 길이 비로서 興하게 된 것이다.

張仲景具備得之 始爲成家著者 醫道始興. 『醫源論』 만일 醫家の 공로와 업적을 따진다면 첫째로 張仲景, 朱肱, 許浚을 들 수 있다.

若以醫家 勤勞功業 論之即 當以張仲景朱肱許浚爲首. 『醫源論』

또한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에서의 인용 문헌⁴⁾별 빈도수에서 살펴보면 전체 137문항 중 66문항이 傷寒論에서 인용되어 전체의 48.2%에 이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⁵⁾ 그 외에 四象人의 病證藥理의 설명에 있어서도 傷寒論의 三陰三陽의 病證과 四象人의 病證藥理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張仲景이 少陰人의 病證藥理를 거의 소상히 밝혀 놓았고 少陽人의 病證藥理는 반을 밝혔으며 太陰人의 病證藥理는 거의 그림자만 얻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李濟馬가 각 四象人의 病證藥理를 풀이함에 있어서 張仲景의 六經辯證을 기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거의 소상하게 밝힌 것을 宋元明의 여러 의사들이 완전할 정도로 밝혔고, 少陽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절반 정도 자세히 밝힌 것을 宋元明의 여러 의사들이 거의 소상하게 밝혔고, 太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대략 그림자만 비친것을 宋元明의 여러 의사들이 절반쯤 소상하게 밝혔고, 太陽人의 病證藥理는 朱震亨이 약간 그림자만 비쳤으며 또한 본초에도 약간의 약리가 나와 있다.

少陰人病證藥理 張仲景幾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盡乎昭詳發明. 少陽人病證藥理 張仲景半乎昭詳發

明 而宋元明諸醫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病證藥理 張仲景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大半乎昭詳發明. 太陽人病證藥理 朱震亨略得影子 而本草略得藥理. 『醫源論』

이렇듯 張仲景 傷寒論의 영향을 받았지만 李濟馬는 이러한 傷寒論의 三陰三陽의 病證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인식 체계를 갖추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의 의학 체계 안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문장을 통해서 드러난다.

무릇 脈法은 證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이니 그 이치는 浮沈遲數에 있으니 그 기묘한 이치를 구하지 말고 三陰三陽은 辯證의 같고 다름이니 그 이치는 腹背表裏에 있으니 그 經絡의 變에 구하지 말라.

三陰三陽者 辯證之同異也 其理在於腹背表裏 而不必求其經絡之變也. 『醫源論』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李濟馬가 三陰三陽의 辯證에 있어서 그 腹背表裏의 이치만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이다. 三陰三陽을 바라 보는 변함한 해석들의 틈에서 벗어나 그 이치를 배와 등, 밖과 안의 파악으로 단순화 시킨 것이다. 배와 등으로 단순화한 개념은 臟腑論에서 장부의 위치를 기존의 의학과는 달리 腹背 즉, 인체의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고 腑는 復이 있는 전면에 위치를 설정하고 臟은 背가 있는 후면에 위치를 설정하여 四焦를 나눈 이제마의 장부론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⁶⁾ 또한 表裏의 개념은 이제마가 四象病證을 서술해 나가는 기본틀로 사상인의 병증을 각각 표병과 리병으로 나누어 설명함을 볼 수 있다. 李濟馬가 四象病證을 表

4.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인용된 인용문은 인용문헌 보다는 東醫寶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朴性植.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제마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에 잘 나타나 있다.
5. 朴性植. "四象醫學의 醫學의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
6. 肺部位在頤下背上 胃腕部位在頤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謂之上焦. 脾部位在胷 胃部位在膈 故背膈之間謂之中上焦. 肝部位在腰 少腸部位在腰 少陽部位在膈 故腰膈之間謂之中下焦. 腎部位在腰脊下 大腸部位在膈腹下 故脊下膈下以下謂之下焦. 『臟腑論』

病과 裏病으로 간략히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제마 특유의 腹背表裏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李濟馬가 張仲景의 傷寒論 체계인 三陰三陽病證에서 四象人 病證의 많은 자료를 얻었으나 이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나름대로의 체계로 다시 풀어낸 것이 表病과 裏病의 체계인 것이다. 이 表病과 裏病의 체계는 그가 四象人의 病證을 풀어나가는 도구가 되었으며 그의 의학을 더욱 쉽게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表病과 裏病의 인식은 性情과 관련되어 한층 더 그의 의학 체계 내에서 진면목을 발하게 된다.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四象人 각각 특유의 性情과 그 性情의 偏倚過不及에 따른 四象人의 각기 독특한 손상 부위를 언급하고 있다.

太陽人의 哀心이 깊어지면 表氣를 상하고 怒心이 폭발하면 裏氣를 상한다. 그러므로 해역은 表證이니 만치 哀心을 경계하고 怒心을 멀리할 것을 아울러 말해둔 것이다. 少陽人의 怒性은 口·膀胱의 氣를 상하고 哀情은 腎·大腸의 氣를 상하며 少陰人의 樂性은 目·背脊의 氣를 상하고 喜情은 脾胃의 氣를 상하며 太陰人의 喜性은 耳·목덜미의 氣를 상하고 樂精은 肺·胃脘의 氣를 상한다.

太陽人 哀心深着卽傷表氣, 怒心暴發卽傷裏氣 故解你表證 以戒哀遠怒兼言之也 曰然卽少陽人 怒性傷口膀胱氣 哀情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傷目背脊氣 喜情傷脾胃氣 太陰人 喜性傷耳腦頰氣 樂情傷肺胃脘氣乎 曰然 『太陽人內觸小腸病論』

이 글은 李濟馬가 사상인의 性情과 그 過不及偏倚로 인한 사상인 특유의 손상 관계를 여느 편과는 달리 상세히 밝힌 것이다. 이 중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한다는 표현은 성과 정을 구분하여 그 사람의 병됨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性情과 表裏病에 관련해서는 아래 논문들⁷⁾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표병과 리병의 구분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 저술 초기에는 표병과 리병을 각기 外感과 內觸으로 하여 현재 外感과 內傷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연구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李濟馬가 四象病證을 表病과 裏病으로 나누게 된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三陰三陽의 病證을 腹背表裏로 파악하는 李濟馬 특유의 체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四象人 表裏病의 輕重證

太陰人 病證을 살펴 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四象 病證에 대한 개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현재까지의 사상 병증에 관한 연구 자료들⁹⁾의 표와 병증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표¹⁰⁾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趙兪晟,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사상의학회지 Vol.5 No1.1993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編名에 대한 小考", 1994에 잘 나타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張寧根, "少陰人의 性情과 表裏病證의 관계에 대한 考察" 석사과정2기 중간발표, 1991. 12에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編名에 대한 小考", 1994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자료로는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1968. 이 그 시초로 보여지며 그 이후의 연구 자료는 金達來, 四象醫學 病證論에 관한 考察, 박사과정 제2기 중간발표논문, 1989.6.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차철주, 四象人 병리기전에 관한 고찰, 1993.에 그대로 인용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표 1은 四象病證에 대한 자료들 중 金達來, "四象醫學 病證論에 관한 考察", 박사과정 제2기 중간발표, 1989.6와 宋一炳, "알기 쉬운 四象醫學", 제1판, 1993년 2월 10일, 서울, 하나미디어 213쪽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表 1] 四象病證圖表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表病		胃受熱表熱病論		脾受寒表寒病論		胃院受寒表寒病論		外感癰瘡病論(解佈)	
		順(輕)證	逆(重)證	順(輕)證	逆(重)證	順(輕)證	逆(重)證		
		鬱狂證	亡陽證	少陽傷風證	亡陰證	太陽寒厥證	肺燥寒證		
裏病		脾受寒裏寒病論		胃受熱裏熱病論		肝燥熱裏熱病論		內傷小腸病論(啞痢)	
		順(輕)證	逆(重)證	順(輕)證	順(輕)證	順(輕)證	逆(重)證		
		太陰證	少陰證	胸膈熱證 (裏熱便閉證 과 消渴證)	陰虛午熱證	肝燥熱證	燥澁便閉證		

이는 현재 四象病證의 인식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상병증을 각각 表病과 裏病의 구분 아래 輕證과 重證의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병증을 예시하여 四象病證의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표이다. 이러한 현재의 사상 병증에 관한 연구 자료는 아래 표2¹¹⁾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표2의 내용에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表 2] 四象病證圖表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表病	表	鬱狂證	少陽傷風證	太陽寒厥證	解佈證
	裏	亡陽證	亡陰證	肺燥寒證	
裏病	表	太陰證	胸膈熱證 (胃熱消渴證)	肝熱證	啞痢證
	裏	少陰證	裏熱便閉證	增寒壯熱燥澁證	

표1과 표2를 비교하여 살펴 보면 표2에서 表病과 裏病속에서 각기 表와 裏를 다시 구분하던 것을 표1에서는 표병과 리병의 각각의 順(輕)證, 逆(重)證으로 구분하여 설명¹²⁾하고 있고, 표2에서 少陽人 裏病을 胸膈熱證과 裏熱便閉證으로 구분하던 것을 표1에서는 胸膈熱證과 陰虛午熱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표2의 太陰人病證에서 裏病의 肝熱은 표1에서는 肝燥熱로 표2의 增寒壯熱燥澁證은 표1에서 燥澁便閉證으로 證名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마의 의학정신에 근거한 사상병증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四象病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3. 太陰人 表病의 重證은 胃院寒證이다.

앞의 표1과 표2에서 설명되고 있는 四象人에 따른 表裏病의 대표적인 病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의 表裏病의 대표적인 病證은 각기 철저히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하여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나 있는 병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少陰人 胃受熱表熱病論의 대표적인 병증인 鬱狂證과 亡陽證은 모두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설명한 병증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太陰人 病證을 살펴 보면 表病에서는 太陽寒厥證과 肺燥寒證, 裏病에서는 肝燥熱證과 燥澁便閉證이 대표적인 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표병의 肺燥寒證과 리병의 肝燥熱證은 동의수세보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肺燥寒과 肝燥熱이 각기 지칭하는 바를 살펴 보자. 그리고 李濟馬는 太陰人의 胃院受寒 表寒病과 肝受熱裏熱病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살펴 李濟馬의 의학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肺燥寒證의 證名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肺燥寒證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表病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肺燥寒이라는 명칭은 표2에서

11. 표 2는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1968에 나타나 있는 도표를 그대로 인용함을 밝혀 둔다.
 12. 宋一炳, 알기 쉬운 四象醫學, 제1판, 1993년 2월 10일, 서울, 하나미디어에서 처음으로 順(輕)證, 逆(重)證을 구분하여 표로 표시하고 있으며 각 表裏 病證에서의 順(輕)證, 逆(重)證으로의 구분은 이 자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宋¹³⁾은 肺燥寒證의 病理를 “太陰人은 肝大肺小하기 때문에 肝陰이 過旺하고 肺陽이 부족하여 肝에는 鬱熱이 생기기 쉽고 肺는 虛寒하기 쉽다. 肺陽이 부족하여 衛氣가 약하면 寒邪에 觸犯되어 表鬱하게 되어 衄血不利가 된다.” 등으로 胃脘受寒表寒病論의 病理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太陰人과 燥의 병리기전에 관하여는 “太陰人の 病證은 表病證과 裏病證 모두 燥病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燥는 흔히 기존 證治醫學의 ‘燥因血少’라 하여 血虛 陰虛로 유발된 燥의 개념이 아니다. 表病證의 燥는 太陰人이 肺小함으로 인해 呼散之氣가 부족해서 오는 것으로 이를 肝燥熱에 비교하여 肺燥寒이라 하며 이때의 燥는 땀을 내어 풀어준다.”¹⁴⁾고 태음인의 병은 燥에 의한 병이며 이에 의해 표병에서도 燥를 표현하는 용어로 肺燥寒證이라는 증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胃脘受寒表寒病的 原因을 이와는 달리 勞心焦思가 胃脘을 쇠약하게 하여 體表가 허약하여 寒邪를 이기지 못하여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勞心焦思 끝에 胃脘이 쇠약해지고 體表가 허약하며 寒氣를 이기지 못하는데다가 寒邪에 에워싸인 바 되어 正氣와 邪氣가 서로 다투어 좁이 이기고 主人이 약한 형세이다.

此證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 而表局虛薄 不勝寒 而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이상에서 살펴 본.와와 같이 李濟馬는 표병의 병리를 勞心焦思에 의한 胃脘의 虛弱으로 寒邪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肺燥寒證이라는 증에 사용된 肺燥의 개념과 관련된 병리적 언급을 李濟馬가 설명하는 表病의 病理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肺燥의 병리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李濟馬는 肝受熱裏熱病의 裏病 구도 속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李濟馬가 언급하고 있는 表病의 원인인 胃脘의 衰弱으로 인한 表局의 虛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李濟馬가 언급하는 胃脘의 개념은 證治醫學에서 개념과는 달리 李濟馬의 독특한 臟腑論의 열개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즉, 李濟馬가 언급하는 胃脘의 개념은 證治醫學의 胃 內腔에 해당되는 脾胃能系에 속하는 胃脘¹⁵⁾이 아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의 胃脘은 철저히 李濟馬의 臟腑論에 입각한 肺黨에 속하는 腑로서의 胃脘¹⁶⁾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胃脘은 사상의학 장부론의 구조속에서 무엇을 지칭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胃脘의 부위에 대해서는 四焦의 개념속에서 그 위치가 설정되고 있으며 턱 밑 가슴 위에 있어 肺와 함께 上焦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肺 부위는 이마 밑 등 위에 있고, 胃脘 부위는 턱 밑 가슴 위에 있으므로 등 위와 가슴 위 이상을 上焦라 한다.

肺部位在 頷下背上 胃脘部位 在頷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臟腑論』

13.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1968.

14. 宋一炳, “알기 쉬운 四象醫學”, 제1판, 1993년 2월 10일, 서울, 하나미디어, 222쪽에 잘 나타나 있다.

15. “胃의 內腔을 胃脘이라고 하고 胃의 上口를 上脘, 下口를 中脘, 胃腔의 中部를 中脘이라고 한다.” 金賢濟, 洪元植 편저, 한의학 사전, 제 2판, 1988년 11월 20일, 서울, 성보사

16.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賦海之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臟腑論』

李濟馬가 四焦의 열개 속에서 臟과 腑의 부위를 설명하면서 肺 脾 肝 腎의 臟의 부위는 인체의 背部 즉 후면에서 위치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胃脘 胃 小腸 大腸의 부위는 인체의 腹部 즉 앞면에서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四象醫學 臟腑의 기본 구조가 되는 것으로 이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李濟馬의 腹背表裏의 정신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胃脘의 부위는 턱 아래에서 가슴 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또한 위로는 입과 코로 통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水穀이 胃脘에서부터 胃口로 들어가서 胃에서 머물러 쌓여서 熱氣로 되고, 이 熱氣중의 가볍고 맑은 것이 胃脘으로 올라가서 溫氣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의 이동으로 인해 胃脘의 기능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胃脘은 코와 입에 통해 있으면서 胃에서 생성된 熱氣의 맑은 기가 상승하는 곳이다. 李濟馬는 장부론의 구조 속에서 胃脘을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수곡이 胃脘에서 위로 위에서 소장 소장에서 대장으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항문으로 나가는데 그러한 수곡이 온통 胃에서 정숙되면 혼중하여 熱氣가 되고 소장으로 소도되면 평담한 涼氣가 되는 것이니, 熱氣의 경청한 것은 胃脘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涼氣의 질중한 것은 대장으로 하강하여 寒氣가 된다.

水穀 自胃脘而入於胃 自胃而入於小腸 自小腸而入於大腸 自大腸而出於肛門者 水穀之都數 停畜於胃而蒸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

『臟腑論』

胃脘이 입과 코로 통하는 까닭에 수곡의 기는 상승하고 大腸의 기는 항문으로 통하는 까닭에 수곡의 기는 하강한다.

胃脘通於口鼻 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 故水穀之氣下降也. 『臟腑論』

이렇게 하여 형성된 溫氣가 胃脘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언급하고 있다. 수곡의 溫氣가 변화하여 津으로 되고 이 津海의 濁滓가 胃脘의 상승하는 기운에 의해 胃脘을 돕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李濟馬는 기운의 상승을 胃脘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水穀溫氣가 변화하여 津으로 된다. 이 津海의 濁滓가 胃脘의 上升之力으로 胃脘을 補益한다.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之濁滓即 胃脘以上升之力 取其濁 而以補益胃脘.

『臟腑論』

이상을 토대로 살펴 보면 胃脘의 부위는 頷下胸上에 해당되며 이러한 胃脘은 기의 상승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마가 四端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한 氣의 升降이 臟腑論에서는 수곡 기의 변화에 따라 四焦에서의 氣의 升降으로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병리적인 설명과 치료의 관점에 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胃脘은 혀, 귀, 頭腦, 皮毛와 더불어 肺의 무리에 속하는 것으로 턱 밑과 가슴 위에 있으며 胃脘의 上升之力으로 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胃脘의 上升之力은 肺의 呼散之氣¹⁷⁾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太陰人에게 있어서는 呼散之氣가 保命之主로 설명되고 太陽人에게 있어서는 吸聚之氣가 保命之主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太陰人의 肝大肺小함을 고려할 때 肺가 呼散之氣를 주관한다고 생각되며 太陽人이 肺大肝小함을 고려해 볼때 肝이 吸聚之氣를 주관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의 병리는 肺黨의 腑에 해당되는 胃脘이 노심초사로 쇠약해져 表局이 허약하여 寒邪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태음인 표병의 병리를 胃脘寒으로 설명하는 것 이외에 이제마는 表裏가 모두 병든 경우를 설명하면서 表病은 胃脘寒한 것이요 裏病은 肝熱한 것으로 그 병리를 언급하고 이는 태음인 병으로는 매우 重한 증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太陰人 한 사람이 본래 목 안이 마르고 얼굴 빛이 창백하며 몸이 차고 설사를 하는 증세가 있었다. 목 안이 건조한 것은 肝에 熱이 있기 때문이요, 얼굴 빛이 창백하고 몸이 차며 설사를 하는 것은 胃脘이 차기 때문이다. 이는 表裏가 다 함께 병을 받은 것이니 太陰人 병으로는 매우 증한 증세이다.
有一太陰人 素病咽噎乾燥 而面色青白表寒或泄 盖咽噎乾燥者 肝熱也 面色清白表寒或泄者 胃脘寒也 此病表裏具病 素病之太重者也.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위의 문장에서 얼굴 빛이 창백하고 몸이 차며 설사를 하는 것은 胃脘이 차기 때문으로 표병에 해당된다고 보고 목 안이 건조한 것은 肝이 熱하기 때문으로 리병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 胃脘寒을 태음인 표병의 병리 기전로 설명한 것 이외에도 表病의 重證으로서의 병증을 胃脘寒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의하면 현재까지의 사상병증에 대한 연구에서는 태음인 표병의 중증을 肺燥寒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李濟馬는 태음인 표병의 重證을 정충이 있고 땀은 나지 않으며 氣短하고 結咳¹⁸⁾의 증상이 평소에 있으면서 설사가 수십일 동안 계속되는 증상을 胃脘寒證癩病으로 보고 그 처방에 있어서는 태음인 표병의 기본 처방인 太陰調胃湯에 栲根白皮를 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찌기 太陰人 胃脘寒證의 癩病을 치료한 적인 있다. 太陰人 한 사람이 평소에 정충증이 있었고 땀이 없이 氣短하고 結咳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한가지 증세가 겹치니 설사가 수십일 동안 그치지 않는다. 이는 表病중에 가장 증한 증세이다. 太陰調胃湯에 栲根白皮1돈을 加해 하루에 두 침씩 열흘을 계속하니 설사가 그치고 이어서 한 달을 계속하니 매일 얼굴에서 땀이 흐르면서 본래의 병도 나았다.

黨治太陰人胃脘寒證癩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冲無汗 氣短結咳矣. 忽焉又添出一證泄瀉 數十日不止 卽表病之重者也. 用太陰調胃湯加栲根皮一錢 日再服 十日泄瀉方止 連用三十日 每日流汗滿面 素證亦減.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위에서 癩病의 개념이 추가되는 것은 설사가 수십일동안 그치지 않음에서 癩病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설사를 제외한 太陰人 素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怔冲 氣短 無汗 結咳의 경우는 그 증상의 파악에 있어서 證治醫學에서의 胃脘 즉 胃와 관련된 脾機能系의 병과는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李濟馬 의학 체계 내에서의 胃脘寒證 증상으로 胃脘이 肺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東醫壽世保元의 문헌적 자료 즉,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의 表病理의 언급

18. “結咳는 억지로 기침을 하면서 痰을 뱉고자 하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少陰人의 結咳는 胸結咳에 해당되고 太陰人의 結咳는 肺結咳에 해당된다.”고 李濟馬는 부언하고 있다. 太陰人의 結咳는 증치의학에서의 梅核氣에 해당된다고 본다.

과 表病의 重證으로 설명하고 있는 胃脘寒證의 證에 근거하여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 表病의 重證으로 이해되고 있는 肺燥寒證은 胃脘寒證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肺燥는 肝熱과 더불어 裏病의 病理이다.

그러면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肺燥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肺燥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자. 肺燥라는 용어의 언급은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그와 유사한 개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肺燥의 病理가 肝熱과 더불어 裏病의 병리로 사용되는 것을 아래 두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太陰人이 얼굴 빛이 푸르고 희면 대개는 燥證이 없는 것이요 얼굴 빛이 누르거나 붉고 검으면 燥證이 많은 것이다. 이는 肝이 熱하고 肺가 燥한 까닭이다. 일찌기 太陰人 燥熱證을 치료한 일이 있다. 손가락이 검게 타고 또 반창이 생겼다.

論曰太陰人 面色清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肝熱肺燥而然也 嘗治太陰人燥熱證 手指焦黑斑瘡病 自左手中指焦黑無力 二年內一指黑血焦凝過掌心而 掌背浮腫 以刀斷指矣.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이 구절에서는 얼굴 빛이 누르거나 붉고 검은 경우는 燥證이 많은 것으로 肝熱하고 肺燥하기 때문이고 이 肝熱과 肺燥는 太陰人의 燥熱證을 야기한다고 보고 手指焦黑斑瘡病을 燥熱證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李濟馬는 肝熱과 肺燥를 동시에 裏病의 주된 병리로서 인식하며 燥熱病의 원인

으로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의 양이 많으면서 대변이 秘燥한 太陰人 燥熱病¹⁹⁾에서도 사치와 향락으로 慾火가 밖으로 달려서 생긴 것을 원인으로 보고 그 병리에 있어서는 肝熱肺燥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병은 반드시 不治의 병은 아니다. 이 청년이 병을 얻고 약을 쓰기 시작한지 1년만에 죽었으니 이 병의 원인은 사치와 향락으로 慾火가 밖으로 달려서 肝熱이 크게 盛하고 肺가 燥하여 크게 이를 말려 버린 까닭이다.

此病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得病 用藥一週年後方死 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太盛 肺燥太枯之故也.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이제마는 太陰人 燥熱證을 少陽人 消渴病과 비교하여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⁰⁾ 소양인 소갈병의 경우 증치의학의 上消, 中消, 下消로 설명하고 있으나 태음인 조열증의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의 양이 많으면서 대변이 秘燥한 증상으로 설명하여 證治醫學에서는 같은 소갈병으로 보는 것을 체질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문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李濟馬는 肺燥의 病理를 모두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肝熱과 더불어 나타나는 肺燥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은 그 병리가 노심초사로 인해 胃脘이 쇠약하여 表局이 허박하게 되어 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寒邪에 둘러싸이는 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胃脘寒을 태음인 表病의 기본 병리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태음인 表病의 重證으로 胃脘寒證瘧病이라는 독립된 하

19. 이는 證治醫學의 消渴病에 해당된다. 李濟馬는 『靈樞』의 消渴의 病理와 症狀, 『難經』의 消渴의 脈象, 『金匱要略』의 腎氣丸을 사용하는 證을 이용해서 太陰人 燥熱病을 설명한다.

20. 此非少陽人消渴也 卽太陰人燥熱也 此證不常用腎氣丸 當用熱多寒少湯加 藥本大黃. 『太陰人肝燥熱裏熱病論』

나의 病證으로 胃脘寒證을 설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현재 태음인 表病의 重證으로 인식되고 있는 肺燥寒證은 胃脘寒證으로 대체하는 것이 太陰人 病證의 인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마는 肺燥의 病理를 모두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의 裏病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肝熱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으로 肝熱肺燥를 太陰人 裏病 燥熱證의 기본 병리로 인식하고 있다.

5. 太陰人 裏病의 輕證은 肝燥熱證이다.

현재 太陰人肝受熱裏熱病의 重證으로 파악하고 있는 肝燥熱證에 대해서 살펴보자. 肺燥寒證과 마찬가지로 肝燥熱證이란 太陰人 裏病의 重證도 동의수세보원내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李濟馬가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과 肝受熱裏熱病論을 통해 肝熱과 燥熱證으로 설명하고 있는 병리와 증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중 肝熱의 병리와 증상 그리고 燥熱證에 대해서 동의수세보원에 언급되어 있는 설명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肝熱에 대한 언급부터 살펴 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 表裏가 모두 병들어 목이 건조하면서 얼굴 빛이 창백하며 몸이 차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 胃脘寒을 表病으로 肝熱을 裏病의 병리로 설명하고 있다.

太陰人 한 사람이 본래 목 안이 마르고 얼굴 빛이 창백하며 몸이 차고 설사를 하는 증세가 있었다. 목 안이 건조한 것은 肝에 熱이 있기 때문이요. 얼굴 빛이 창백하고 몸이 차며 설사를 하는 것은 胃脘이 차기 때문이다. 이는 表裏가 다 함께 병을 받은 것이니 太陰人 병으로는 매우 중한 증세이다.
有一太陰人 素病咽噎乾燥 而面色清白表寒或泄 盖咽噎乾燥者 肝熱也 面色清白表寒或泄者 胃脘寒也 此病表裏具病 素病之太重者也.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위의 경우 20일이 경과한 후에 병이 풀리면서 대변이 滯하여 寒多熱少湯으로 치료하였다. 이제마는 이외에 太陰人이 素病으로 수년간 눈병을 앓다 瘰癧病이 걸린 것을 肝熱熱證瘰癧病으로 설명하면서 熱多寒少湯을 기본으로 하고 대변의 상태에 따라 大黃을 가감하여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찌기 태음인이 肝에 熱을 받아서 열성인 온병을 치료한 일이 있다. 본래 이 사람이 눈병이 있었는데 여러해를 나았다 더했나 하더니 또 온병이 걸렸다. 嘗治太陰人 肝熱熱證瘰癧病 有一太陰人 素病數年來 眼病 時作時止矣.

이러한 肝熱의 병리와 병증외에 언급되고 있는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太陰人 燥熱證은 아래의 문장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태음인 燥熱證으로 손가락이 검게 타고 반창이 생겨 일년내에 반창이 전신으로 퍼지는 중한 병증을 언급하면서 熱多寒少湯에 藜本2돈과 大黃1돈을 가하여 치료하여 대변이 滯해지면서는 병이 점차적으로 완쾌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太陰人이 얼굴 빛이 푸르고 희면 대개는 燥證이 없는 것이요 얼굴 빛이 누르거나 붉고 검으면 燥證이 많은 것이다. 이는 肝이 熱하고 肺가 燥한 까닭이다. 일찌기 太陰人 燥熱證을 치료한 일이 있다. 손가락이 검게 타고 또 반창이 생겼다.

論曰太陰人 面色清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盖肝熱肺燥而然也 嘗治太陰人燥熱證 手指焦黑斑瘡病 自左手中指焦黑無力 二年內一指黑血焦凝 過掌心而 掌背浮腫 以刀斷指矣.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 양이 많아지면서 대변은 비조한 태음인 燥熱證은 소양인이 消渴證과 닮음을 설명하면서 熱多寒少湯에 고본과 대황을 가하여 치료하고 있음을 아래의 구절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燥熱證이 劇한 경우에

는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열증의 기미가 있으면 빨리 약을 써서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병은 少陽人의 消渴病이 아니라 太陰人의 燥熱病인 것이다. 이 증세에는 腎氣丸을 써서는 안 되고 熱多寒少湯에 藜本 大黃을 加해 써야 한다.
論曰此病非少陽人消渴也 卽太陰人燥熱也 此證不當用腎氣丸 當用熱多寒少湯加藜本大黃.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일찌기 太陰人 50세 가까운 사람의 燥熱病을 치료한 일이 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의 양도 많으며 대변이 秘燥하므로 熱多寒少湯에 藜本2돈, 大黃1돈을 가하여 20첩을 썼더니 효과를 보았다.
嘗治太陰人年五十近衰者 燥熱病 引飲小便多大便秘者 用熱多寒少湯用藜本二錢 加大黃一錢 二十貼得效矣.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대개 燥熱病은 물 한 사발 마시면 오줌 두 사발을 누며 병이 劇에 이르면 고치기 어렵다. 무릇 太陰人이 대변이 秘燥하고 오줌이 많다고 생각되며 물이 많이 먹히거든 빨리 약을 써서 미리 예방해야 한다.
蓋燥熱至於飲一溲二而 病劇卽難治 凡太陰人 大便秘燥小便覺多而引飲者 不可不早治豫防也.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李濟馬는 太陰人肝受熱裏熱病에서 목이 건조한 것과 素病으로서의 눈병을 肝熱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며 手指焦黑斑瘡病과 證治醫學의 消渴病에 해당하는 것을 燥熱證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제마는 太陰人肝受熱裏熱病에서 肝熱과 燥熱을 태음인 裏病의 원인과 병리로 파

악하고 있다. 간열과 조열증의 치료에 있어서 熱多寒少湯을 기본으로 하고 藜本과 大黃을 가함을 생각해 볼 때 현재 간조열증이라는 인식과 열다한소탕에 대황을 가한 淸肺瀉肝湯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마의 病證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太陰人 치료 목표는 恭敬其心과 蕩滌慾火이다.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과 肝受熱裏熱病論을 통해 太陰人 表裏病의 원인과 각각의 중심이 되는 병증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李濟馬가 각 병증의 원인이 되는 性情의 偏倚過不及과 그로 인한 질병의 발생 그리고 그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마음 가짐까지 언급해 놓았다는 것이다.

胃脘受寒表寒病論의 表病에서는 노심초사로 인해 胃脘이 쇠약해졌다고 언급²¹⁾하고 있으며 肝受熱裏熱病論에서 燥熱證에 대해서는 사치와 향락으로 慾火가 밖으로 달려서 肝熱이 크게 상하고 肺가 燥하여 크게 이를 말려 버린 까닭²²⁾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노심초사, 사치, 향락, 慾火등을 태음인병의 원인이 되는 心慾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부종을 태음인의 重하고 險한 병으로 설명하면서 대체로 太陰人은 노심초사하여 자주 도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혹 오랜 실사가 이질로 되거나 임질로 인해 소변이 불통하게 되거나 식후 비만 증에 다리가 무력한 병들이 모두 부종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때에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공경하며 약을 쓰면서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

21. 此證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 而表局虛薄 不勝寒 而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刑勢 客勝主弱.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22. 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太盛 肺燥太枯之故也.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23.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肥滿 腿脚無力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 已浮腫論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可也.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이렇게 이제마가 마음상태에 따른 질병의 발생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은 四端論에서의 인간의 心慾에 따른 과약에서 부터 찾아 볼 수 있다. 四端論에서 사람의 心慾이 나아가는 바에 따라 鄙人, 懦人, 薄人, 貧人으로 나누며 이 중에서 仁을 버리고 지극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太陰人에 해당되는 貧人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태음인 병증에서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는 것을 태음인 치료의 근본으로 언급하는 근간이 된다.

사람이 달리는 心慾에 네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禮를 버리고 방종하게 구는 사람을 鄙人이라 하고 義를 버리고 안일을 꾀하는 사람을 懦人이라 하며 智를 버리고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을 薄人이라고 하고 仁을 버리고 지극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貧人이라 한다.

人歛心慾 有四不同 葉禮而放縱者 命曰鄙人 葉義而偷逸者 名曰懦人 葉智而飾私者 名曰薄人 葉仁而極慾者 名曰貧人 『四端論』

태음인에 있어서는 병의 치료보다는 환자의 마음가짐을 중시하여 환자가 항상 바른 마음으로 蕩滌慾火 恭敬其心를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어떤 환자이든지 간에 그 마음을恭敬하며 慾火를 깨끗이 씻고 착한 마음씨로 안정하기를 백일이면 그 병이 낫지 않을 리 없고 이백일이면 그 사람이 완전치 않을 리가 없다.

凡無論其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即 其病無不愈 二百日即 其人無不完 恭敬德澤之個 個受報 百事皆然而疾病 尤甚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이와 같이 蕩滌慾火 恭敬其心등으로 심성의 조절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마가 性命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存其心養其性 修其身立其命'의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병증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마의 특유의 治心治病을 중시하는 의학 정신을 볼 수 있다.

Ⅲ. 結 論

사람마다 각기 疾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의 다름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체질의 분류에서 부터 병증의 형, 치료의 기준, 처방에 이르기까지 체계화한 것이 李濟馬의 四象醫學이다.

그러나 그 체계가 李濟馬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마저도 病證에 대해 다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몇몇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太陰人 病證은 태음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李濟馬 스스로가 그 간략함만을 얻어 저술하였다고 언급하듯이 많은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앞에서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문헌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太陰人 病證을 살펴 보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李濟馬가 四象病證을 表裏病으로 구분하게 된 시발은 傷寒論의 三陰三陽의 病證을 李濟馬는 腹背表裏로서 인식한데 근거하며 이는 더욱 발전하여 性情과의 연관을 맺는 등 李濟馬 특유의 의학 체계 속에서 사용된다.

둘째,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的 病理 기전은 본래 勞心焦思 끝에 胃脘이 쇠약해지고 表局이 허약하여 寒氣를 이기지 못하고 寒邪에 에워싸인 바 되어서 正氣와 邪氣가 서로 다투어 客이 이기고 主人이 약한 형세이다. 즉 太陰人 表病的 病理은 胃脘이 寒邪를 받아서 생기는 것이다.

세째,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에서 重證으로 이해되는 肺燥寒證은 表病的 胃脘受寒이라는 病理와 怔冲, 無汗, 氣短, 結咳를 主證으로 하는 胃脘寒證의 존재에 의해 胃脘寒證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胃脘은 證治醫學에서의 胃脘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李濟馬의 臟腑論에 근거하여 肺黨에 속하는 腑로서의 胃脘이다. 胃脘寒證은 肺黨에

속하는 胃脘이 寒邪에 의해 上升之力을 잃어서 발생하며 기를 상승시키는 胃脘의 기능은 肺의 呼散之氣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肺燥의 病理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나타나며 肝熱과 함께 燥證이 많은 手指焦墨癩瘡病과 證治醫學에서 消渴病에 해당되는 太陰人 燥熱證의 기본 병리가 된다.

다섯째,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는 그 病理와 病證의 언급에서 肝熱이라는 개념과 燥熱證이라는 개념의 병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肝燥熱이라는 病證名은 李濟馬의 病證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째, 李濟馬는 병증론에서도 勞心焦思나 侈樂無厭 慾火外馳가 병을 유발하게 됨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恭敬其心 蕩滌慾火'를 중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나마 太陰人 病證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太陰人 病證에 있어서는 아직도 깊은 연구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태음인 표병과 리병의 처방을 중심으로 胃脘寒과 肺燥를 구별하여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증치의학의 방제 정신이나 약물의 사용 정신이 이제마의 방제 운용 정신과 다름을 생각해 볼 때 표병의 胃脘寒證의 太陰調胃湯과 調胃升清湯 약물의 성격과 肝熱肺燥의 熱多寒少湯 약물의 성격의 차이를 胃脘寒과 肝熱肺燥와 관련하여 기존의 증치의학과는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산적해 있는 四象 病證 연구에

문제 의식을 제기함에 그 의미를 두며 앞으로 사상 병증에 대한 더욱 진전된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중판, 1986년 3월 20일, 서울, 행림출판
2. 홍순용 이을호 역술, 사상의학원론, 제2판, 1994년 1월 30일, 서울, 행림출판
3. 송일병, 알기 쉬운 사상의학, 제 1판, 1993년 2월 10일, 서울, 하나미디어
4. 홍원식 김현제 편역, 한의학사전, 제 2판, 1988년 11월 20일, 서울, 성보사
5. 송일병, 사상의학의 약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1968
6. 김달래, 사상의학 변증론에 관한 고찰, 박사과정 제 2기 중간발표 논문, 1989
7. 박성식,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제마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지, Vol.5. No.1. 1993
8. 박성식, 동의수세보원 사상인 표리병증 편명에 대한 소고, 1994
9. 조황성, 성정과 표리증과의 관계, 사상의학회지 Vol.5 No.1, 1993
10. 장녕근, 소음인의 성정과 표리병증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석사과정 제 2기 중간발표, 1991.12
11. 차철주, 사상인 병리기전에 관한 고찰, 1993